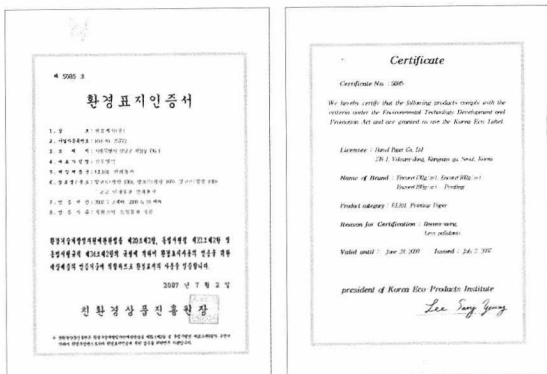


## 한솔제지, 앙코르 등 총 22종 환경마크 인증

한솔제지가 최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19종의 보유 환경마크를 연장 등록하고 신규로 3종의 인증을 획득, 총 22종의 환경마크 인증을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 제지업체 중에는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이번에 환경마크를 새롭게 획득한 앙코르는 고급인쇄용지 부문에서는 국내 최초로 재생펄프 55%를 사용한 제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앙코르는 종이 고유의 따뜻한 질감이 살아 있는 하이벌크지로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우수한 인쇄품질 및 잉크건조성을 장점으로 한다. 평량은 130g/m<sup>2</sup>, 160g/m<sup>2</sup>, 190g/m<sup>2</sup>이며 기타 평량의 제품은 주문, 생산된다. 카탈로그, 화보집, 연례보고서 등에 주로 활용되며 친환경 기업의 사보나 환경보호 단체의 인쇄물 등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무림SP 네오력서리, 고급 인쇄용지 시장 진출

무림SP가 지난 8월 거친 면감을 유지하면서도 블레이드 코팅 방식이 아닌 에어나이프(Air Knife) 코팅 방식을 사용, 인쇄 적성을 한층 업그레이드한 네오력서리를 출시했다.



네오력서리는 굴곡진 면을 일정하게 코팅하는 에어나이프 코터를 통해 균일한 코팅량을 유지, 탁월한 인쇄적성을 자랑하며 뛰어난 발색 등 디자이너의 니즈를 100% 충족하고 있다.

네오력서리 출시와 관련 노희동 마케팅실장은 “네오력서리는 건설사 분양 카탈로그, 자동차 카탈로그, 작품 화보집, 브로슈어, 사보 등 고급 인쇄물에 적합하다”며 “고가의 수입지에 버금가는 인쇄품질과 가격 경쟁력으로 차별화된 인쇄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네오력서리의 평량은 120g/m<sup>2</sup>, 160g/m<sup>2</sup>, 190g/m<sup>2</sup>, 230g/m<sup>2</sup>으로 전국 주요 지류유통사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한국제지 정해만 파트장, 품질경영 유공자 포상 수상

한국제지는 최근 개최된 울산광역시 품질분임조 경진대회에서 정해만 파트장이 울산광역시장이 수여하는 품질경영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고 전했다.

정해만 파트장은 ISO 9001 규정에 근거, 품질주검사시스템 실시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품질확인 활동을 명확히 하는 한편, ISO 14001 인증획득에 큰 역할을 하여 대외적 위상을 세운 공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 미국 제지업체, 2/4분기 경영실적 호전

미국 주요 제지업체들의 2/4분기 경영실적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미국 주요 제지업체들을 조사한 결과, 2/4분기 매출액은 240억달러를 기록, 0.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은 7억9700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2% 증가했으며, 1/4분기 2.5%에 그쳤던 이익마진도 전년 동기 대비 0.1%p 상승한 3.3%에 이르렀다. 또한 신문용지와 LWC를 제외한 모든 지종의 가격이 올랐지만 이익 상승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25개 제지업체의 5월 누계 종이와 판지 생산량은 3754만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6% 감소했고, 매출액은 2억달러나 줄었다. 매출액 감소는 Weyerhaeuser가 Domtar에 33억달러 상당의 생산설비를 매각한 영향이 컸다. Weyerhaeuser는 설비 매각으로 5억달러 규모의 매출액이 줄었다.

Bowater, Cellu, Glatfelter, Graphic Packaging, Pope&Talbot의 2/4분기 매출실적도 적자였는데, Bowater와 Pope&Talbot은 4천만달러 이상 손실,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Bowater는 신문용지 가격하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으며 Pope&Talbot은 펄프 출하량 감소로 이익이 크게 줄었다.

## 이엔페이퍼, 단독대표로 전환

이엔페이퍼는 지난 7월 31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김종근 공동대표이사가 비상임 이사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최우식 공동대표가 부임한 이래 1년 5개월 동안 지속해온 공동대표이사 체제도 단독대표이사 체제로 전환됐다. 이엔페이퍼는 그동안 고비용, 비효율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공동대표이사 체제를 청산하고 최우식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경영효율화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이엔페이퍼는 지난 2월 효율적인 재무구조를 갖추기 위해 대전 공장을 매각한데 이어, 지난 7월 효율적인 설비구조 구축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주1공장 및 진주2공장의 일부 설비 폐쇄를 결정한 바 있다.

## 한국제지, 탄자니아 교사·학생 공장방문



한국제지는 최근 탄자니아 교사, 학생, 국내 선교사 11명이 온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20여 일 한국문물 탐방 일정 중에 한국제지 공장을 견학하게 된 탄자니아 교사와 학생

들은 현장견학을 통해 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신기해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종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 한국제지, 우수사원 해외선진기업 견학



한국제지는 최근 우수반장 및 우수분임조,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15명에 대한 해외선진기업 견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예년과 달리 원가 절감과 개선활동을 습득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 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해외선진기업 견학은 우수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성취감 고취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신경영기법과 산업현장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제지는 최근 우수반장 및 우수분임조, 우수사원으로 선정된 15명에 대한 해외선진기업 견학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행사는 예년과 달리 원가 절감과 개선활동을 습득하기 위해 도요타 자동차 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가,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해외선진기업 견학은 우수사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통해 성취감 고취 및 자기계발 기회를 부여하고 신경영기법과 산업현장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 삼원페이퍼, 한국·일본·대만 레터헤드 공모전 개최



삼원페이퍼갤러리는 로고·마크와 이를 반영한 스테이셔너리 세트 분야의 그래픽 디자인을 겨루는 콩코르 디자인 공모전을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디자인 교육과 인재육성, 디자인의 국제교류와 사회공헌, 디자인 문화산업 창달 등을 목표로 펼쳐지는 이번 공모전은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과 대만에서도 동시에 펼쳐진다. 3개국 공통의 지정주제는 방글라데시 NGO의 지원으로 방글라데시 Sylhet District의 Companiganj 마을에 새롭게 설립되는 초등학교 골든칠드런스스쿨이고 각국 금상 수상작 3점은 골든칠드런스스쿨에 기증될 예정이다. 아울러 디자인한 콩코르 스테이셔너리 세트는 학교설립과정에서 일어나는 정부,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거나 학교의 로고로도 사용될 예정이다.

나이, 국적, 경력 불문의 국내 거주자 모두 응모할 수 있으며 출품작은 미발표 스테이셔너리 세트(레터헤드, 봉투, 명함, Compliment Slip) 창작 디자인 작품이어야 한다.

접수는 오는 10월 19일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지원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웹사이트([www.samwonpaper.com/contest](http://www.samwonpaper.com/contest))를 참조하면 된다.